

1996년 7월 강원 북부 지역의 홍수

최 예 환*

우리 나라의 중·북부 지방인 강원 중·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기층이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성 구름 대에 의하여 7월 26일 01시 30분부터 철원 지방에 내리기 시작하여 계속해서 28일 아침 10시경까지 화천은 26일 02시부터 28일 아침 6시까지 각각 철원 지방은 최대 시우량 107mm(7월 27일 05:00~06:00) 기간중 강우량 736mm 화천 지방은 최대 시우량 39.5mm(7월 27일 22:00~23:00), 기간중 강우량 521.5mm를 기록하여 시우량 면이나 기간중 강우량 면에서 유래 없이 큰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인명과 재산 및 농경지의 피해를 가져 왔다.

철원 지방은 남대천의 제방 유실이 많은 농경지의 매몰을 가져왔고 토교저수지를 비롯한 노후 저수지가 여수토 붕괴 위험과 11개 저수지의 파손으로 농어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건물피해, 도로·교량파손, 농경지 침수 등 1천 9백여 억원의 피해와 사망 35명 실종 9명 부상 35명 등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화천 지방은 도로 훼손과 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가 유실되어 1천 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도 사망 13명 실종 4명 부상 25명이 발생하였다. 다른 지역의 피해를 합한 강원도의 총 재산 피해는 대략 3천 2백여 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화천 지역은 지형이 계곡성인 유역으로 상서면과 사내면은 산악에 내린 비가 계곡을 따라 급류

가 되고 유량이 증가하여 하폭이 감당을 못하여서 좁은 하천 단면은 세굴시켰고, 하천 변에 있는 군부대들이 건물의 유실과 부대가 일부 침수되고 탄약 및 지뢰가 많이 유실되었으며, 도로가 하천을 건너지르는 곳은 교량폭을 하천폭 이상으로 가설했어야 하나 예산 부족등으로 하폭을 줄여 교량을 가설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곳은 교량을 월류하거나 교량 양단이 유실되어 교량과 도로가 분리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화천의 홍수 피해는 계곡을 따라 일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철원은 화천과는 달리 평야부가 많은데 남대천을 비롯한 하천의 범람으로 농경지 유실과 저수지의 파괴와 양수장의 파괴. 또, 농작물의 피해감수가 예상되며, 화천과 철원지방 모두 산악이 많아 강한 강우강도를 지닌 호우는 산사태를 유발하여 여기 저기에 벌거벗은 산이 되어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였고 철원의 근남면 잠곡댐 축조가 시공 중인 곳에 임시 물막이가 터져 하류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산의 임도 가설은 사방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또 보호 시설이 없이 가설하여 산사태와 더불어 하류의 토사 유실을 가져와 농경지를 비롯한 마을 부락의 더 큰피해를 가져왔으며, 군부대의 하천 횡단 시설물은 하천의 유하량 장애와 하천 단면의 부족을 가져와서 하천 범람의 원인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

* 학회부회장, 강원대학교 교수